

# 韓國樂器의 變遷

張 師 勛

〈서울대 音大 教授・文博〉

《차례》

- 一. 머리 말
- 二. 古代의 樂器
- 三. 三國時代의 樂器
  1. 高句麗의 樂器
    - 가. 安岳古墳의 樂器
      - 1) 前室壁畫의 奏樂圖
      - 2) 後室의 舞樂圖
      - 3) 廻廊의 行列圖
    - 나. 輯安縣 通溝 및 팔청리 古墳의 樂器
    - 다. 隋書 東夷傳에 나타난 樂器
      - 1) 九部伎에 列한 高句麗樂에 사용되던 樂器
  2. 百濟의 樂器
  3. 新羅의 樂器
    - 가. 三國統一 以前
    - 나. 三國統一 以後
- 四. 高麗時代의 樂器
  1. 鄉樂器
  2. 唐樂器
  3. 大晟雅樂器
    - 가. 雅樂器
      - 1) 登歌樂器      2) 軒架樂器
    - 나. 雅樂器의 編成法
      - 1) 親祠 登歌 配置圖
      - 2) 親祠 軒架 配置圖
      - 3) 有司攝事 登歌 配置圖
      - 4) 有司攝事 軒架 配置圖
- 五. 朝鮮時代의 樂器
  1. 世宗代의 樂器 製作 事業
    - 가. 編磬의 製作
      - 1) 世宗 때의 登歌와 軒架
      - 2) 成宗 때의 登歌와 軒架
    - 나. 編鍾의 製作
    - 다. 其他 樂器의 製作
      - 1) 世宗 5年 2月의 製作樂器
      - 2) 世宗 6年 11月의 製作樂器
      - 3) 世宗 12年 10月의 製作樂器
      - 4) 世宗 18年 4月의 製作樂器
  2. 世宗 때의 樂器와 成宗 때의 樂器와의 比較
    - 가. 雅樂器(吉禮序禮의 樂器)
      - 1) 特鍾과 歌鍾    2) 編鍾
      - 3) 特磬과 歌磬    4) 編磬
      - 5) 雷鼓            6) 靈鼓
      - 7) 靈鼓・路鼓    8) 笙
      - 9) 僊와 壎        10) 土鼓
    - 나. 唐樂器와 鄉樂器(嘉禮序例의 樂器)
      - 1) 笛                    2) 唐箏樂
      - 3) 大笛                4) 和・笙・竿
  3. 唐樂器의 鄉樂器化 過程
    - 1) 拍                    2) 杖鼓
    - 3) 奚琴                4) 月琴
    - 5) 牙箏                6) 唐笛
    - 7) 唐피리              8) 唐琵琶
  4. 鄉樂器의 音高 및 奏法의 變化
    - 1) 거문고                2) 奚琴
    - 3) 大琴                4) 其他
  5. 唐樂器의 鄉樂器化
    - 1) 唐笛                2) 洞簫
  6. 朝鮮 末期에 새로 登場한 樂器
    - 1) 洋琴                2) 雲羅
    - 3) 短簫                4) 子絃
    - 5) 竽                    6) 篳篥
  7. 演奏法을 잃은 樂器

## 一. 머 리 말

韓國은 東洋樂器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하고 있는 韓國樂器는 60여종에 이르는데, 이 많은 악기들은 高麗 中葉 이후 文獻에 기록되어 連綿 8, 9백년의 오랜 傳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高麗 以前의 文獻은 零細한 편이어서 이러한 樂器들이 우리나라에서 發生한 것인지, 또는 外方에서 흘러 들어 온 것인지 분명치 않다. 만일에 외국에서 들어 온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 어떠한 經路에 따라 들어왔고, 연주되었는지가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高句麗時代의 樂器는 輯安縣 通溝를 비롯한 많은 壁畫에서 그 形態와 用度를 推定할 수 있고, 新羅時代의 樂器는 三國史記 등의 文獻보다도 오히려 新羅 遺蹟에서 더 많이 散見된다.

三國時代를 中心으로 한 古代樂器의 研究 및 그 整理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古代樂器에 關한 研究는 韓國音樂史를 쓰는 데에 있어서 重要한 基礎 作業중의 한 가지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韓國의 古代樂器를 集大成하여 研究하겠다는 前提下에 우선 韓國樂器의 變遷에 대하여 概觀하여 두고자 한다.

## 二. 古代의 樂器

三國時代의 初期에 해당하는 古代의 樂器를 論하자면 아무래도 그 時代의 歷史的인 背景과 文化的인 尺度와 관련지어가면서 記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이 時代에 관한 문헌이 극히 적고, 또 文化的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헌이나 遺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어느 부분은 類推하여 언급하는 방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陳壽가 지은 三國志(297년) 魏書 東夷傳 등 中國 문헌에 의하면 扶餘, 高句麗, 濊에는 年중 行事로서 一定한 시기를 가리어 노래와 춤으로써 하늘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즉 扶餘는 殷正月, 高句麗와 濊는 10월에 각각 祭天儀式을 가졌는데 이 때에는 온 마을 男女老少가 한데 모여 몇일동안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기었다고 한다.

이러한 집단적인 祭天儀式은 그 거행되던 계절과 方法이 共通性을 띠고 있으며 그러한 모양을 扶餘는 迎鼓, 高句麗는 東盟, 濊는 舞天이라고 이름하였다.

현전 馬韓에서도 5월 개뿌러기를 끝냈을 때와 10월의 秋收가 끝났을 때 祭鬼神하였는데,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행하는 방법은 위의 高句麗와 다름이 없었다.

馬韓의 이러한 行事 때 노는 모습은 數十人이 앞 사람의 뒤를 서로 따르며 땅을 밟으면서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그 손과 발의 동작이 서로 맞았고 그 節奏는 마치 中國의 古代 集團舞蹈이던 鐸舞와 비슷하다는 具體的으로 記錄되어 있다.

이같은 古代 부락민의 집단놀이는 日本의 盆踊(ボンオドリ)에서도 그 잔영을 찾을 수 있는 바로 共通의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옛날 熊川 풍습에도 4월과 10월에 熊山神堂에서 神을 맞아 山 아래로 모셔다 놓고 遠近 사람들이 다투어 모여들어 밤을 새워가며 鍾鼓雜戲하며 제사를 받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遺風은 江陵과 恩山 別神宮 같은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이러한 놀음에 있어서 노래와 춤을 추었을진데 節奏를 맞추자면 무엇인가 비록 原始的이나마 불고 치고 두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이 時代는 이미 靑銅器時代에 들어간 때이고, 三國志나 通典 等書에 의하면 馬韓에서는 고을마다 각각 한 사람을 뽑아 天神을 主祭하는데, 이름을 天君이라 하고 또 蘇塗라 하는 것이 있어 나무를 세워 방울(鈴鼓)을 달고 鬼神을 섬긴다고 하였으니 방울(鈴) 등 쇠부치로 만든 樂器는 물론 짐승의 가죽을 씌운 북 종류가 있었을 것이고, 아울러 高句麗 古墳 舞踊塚 吹角圖에서 보는 바와 같은 原始的인 吹樂器, 角 따위가 있었을 것으로 안다.

이 시기의 악기는 대개 북과 징이나 뿔과리의 原形, 角과 같은 吹樂器가 중심되었을 것이다.

### 三. 三國時代의 樂器

다음에는 좀더 後代로 내려 오면서 인접 國家와의 교류의 差에 의하여 各其 특징을 달리 하게 된 高句麗・百濟・新羅의 순으로 三國時代의 樂器를 개관하기로 한다.

#### 1. 高句麗의 樂器

高句麗는 大陸과 인접한 地理的인 조건하에 中國 또는 西域地方과 일찍부터 交通이 터진 관계로 백제나 신라보다 그 音樂도 훨씬 앞질러 발전함에 이르렀다.

##### 가. 安岳古墳의 樂器

최근 발굴된 안악 고분은 서기 357년에 營造된 冬壽墓로 밝혀지고 있다.

이 무덤의 前室壁畫의 奏樂圖, 後室의 舞樂圖, 廻廊의 行列圖에는 音樂을 연주하는 그림과 춤추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編成된 樂器로써 그 音樂의 종류도 짐작하게 된다.

### 1) 前室壁畫의 奏樂圖

儀仗을 든 사람들이 늘어서 있고 音樂하는 사람들은 앉아 있는 점에서 殿庭에서 演奏되는 儀禮樂이 아닐가 한다.

여기 편성된 樂器는 簫・立鼓와 같은 단순한 樂器로 되어 있다.



圖版 1. 安岳古墳 第三號墳 行列圖 步行樂隊

### 2) 後室의 舞樂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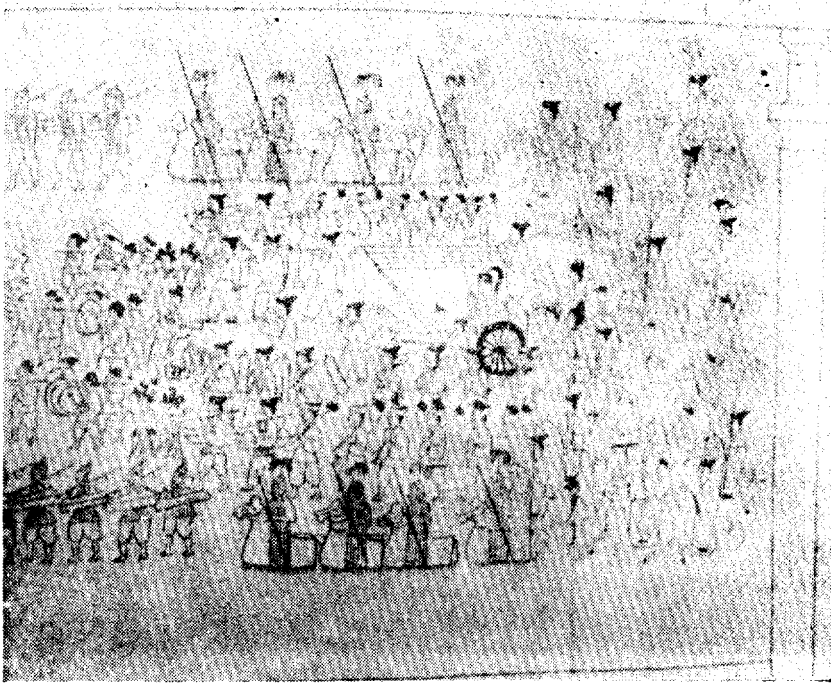
儀仗隊는 없고, 거문고의 原形으로 보이는 絃樂器, 中國系의 玩咸 洞簫(? 세로 부는 吹樂器)가 보인다.

### 3) 廻廊의 行列圖

貴人 行列의 主人公이 한 수레의 앞뒤에 樂隊가 따르고 있다.

수레 앞의 樂隊는 擔鼓(桴鼓), 擔鍾(鐃)으로 編成되고, 뒤의 樂隊는 二重鼓, 簫, 角, 鐸

形打樂器로 編成되어 있다.



圖版 2. 安岳古墳 第三號墳 廻廊 大行列圖 模寫

나. 輯安縣 通溝 및 팔청리 古墳의 樂器

高句麗 古墳에 나타난 악기를 조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대개 5世紀 무렵으로 推定되는 高句麗 古墳중 17號 古墳에는 玩咸, 角, 거문고, 簫, 笛, 腰鼓의 6가지 악기가 보인다. 안악 고분과 비교하면 笛과 腰鼓가 추가된 셈이다.

다. 隋書 東夷傳에 나타난 樂器

隋書 등 中國문헌과 三國史記 등에 의하면 6世紀 후반부터는 그 이전에 比하여 더욱 發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漢나라와 交流하고 나아가서는 西凉을 통하여 龜茲樂을 받아 들이므로써 백제나 신라의 音樂보다 더욱 다채로워졌다. 그럼으로써 隋의 開皇(589~600) 初의 七部伎와 同大業中(605~617)에 광대된 九部伎에 三國 가운데서 高句麗伎만이 列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高句麗 音樂에 使用되던 樂器는 다음과 같다.

1) 九部伎에 列한 高句麗樂에 사용되던 樂器

彈箏, 臥箏篴, 豎箏篴, 琵琶, 五絃, 笛, 笙, 簫, 小箏樂, 桃皮箏樂, 腰鼓, 齊鼓, 擔鼓, 貝 <이상 14種>



圖版 3. 通溝 舞踊塚 舞踊圖

그러나 三國史記에서 通典을 引用한 이 時期의 樂器에는 위의 14種外에 拘箏, 義箏笛, 大箏篳의 3種이 더 많은 17種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日本後記에 三國樂中 高句麗樂은 橫笛, 箏篳, 莫目, 舞였다고 전하는데(809년), 이 중에서 莫目은 몇몇 학설이 있기는 하나 무슨 樂器인지 決論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樂器 또는 管絃編成에 의하여 어떠한 音樂이 演奏되었는지 알길이 없고, 다만 三國史記에 의하면 高句麗의 音樂중에서 唐나라 武太后時代(685~704)까지 25曲이 전하였다고 한다.

또 高句麗의 固有한 樂器인 거문고(玄琴) 音樂에도 王山岳의 作曲이 100여곡이나 이를 연주하매 어찌나 그윽했던지 검은 鶴이 날아들어 춤을 추었다고 하나 그 音樂의 이름도 내용도 알길이 없다. <도표 4, 도표 5>

## 2. 百濟의 樂器

백제 음악에 대한 기록은 너무 적다.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는 中國의 宋과 北魏 등에 그 음악을 소개한 바 있고, 6세기에 日本에 전한 악기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橫笛, 箏篳, 莫目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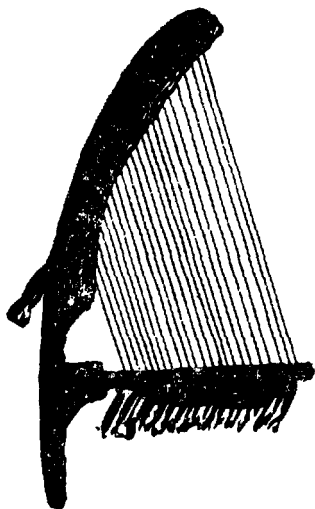
圖版 4. 通溝 舞踊塚 主室 天井奥壁



圖版 5. 通溝 舞踊塚 主室 左壁天井

日本書記에 의하면 서기 554년 무렵에는 樂人 4사람을 交代制로 日本에 파견하여 橫笛, 箏篥, 莫目, 舞를 가르킨 바 있다. 이 중 箏篥는 1300년 전에 전한 실물이 日本 奈良 正倉院에 지금도 보관되고 있다. <도표 6>

그러나 7世紀에서 8世紀 初에 이르면 百濟樂도 많이 발전하여 笛, 桃皮箏篥 등 많은 악기를 사용한다.



圖版 6. 正倉院 공후 模寫

이밖에도 7世紀 初에는 味摩之가 伎樂舞를 日本에 傳하고 櫻井에서 소년들을 모아 傳授한 바 있는데, 이 伎樂舞는 지금의 楊州山臺都監놀이와 假面劇의 原形이었음으로 音樂이 수반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반주 음악이나 거기에 編成되던 樂器에 대해서도 전혀 알 길이 없다. <도표 7>

### 3. 新羅의 樂器

신라시대는 三國統一 以前과 以後로 나누어서 서술하지 않을 수 없다.

#### 가. 三國統一 以前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것은 西紀 669년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가야고는 加耶國의 嘉實王이 만들었는데, 樂師 于勒으로 하여금 12曲을 짓게 하였다 한다.

그런데 于勒은 신라 眞興王 12년(551년)에 그의 제자 泥文과 더불어 新羅로 投降하였다.

眞興王은 于勒을 國原(지금의 忠州)에 자리잡아 禮遇함과 동시에 法知, 階古, 萬德의 세 사람을 보내어 그의 業을 傳授받도록 하였는데, 于勒은 階古에게는 가야고를 法知에게는 노





圖版 7. 河回 양 반

래를 萬德에게는 춤을 각각 가르켰다고 한다.

이와 같이 三國統一 以前の 樂器로써 두드러지게 代表되고 있는 것은 가야고이며 그것은 다음의 事實로써 알 수 있다.

① 신라 시대에 일본에 전한 음악은 琴(伽倻琴), 舞로 되어 있고 <日本後記>

② 三國史記 樂志에 소개된 琴(가야고), 歌, 舞의 綜合演出的 例로

△ 下辛熱舞 : 監 4人, 琴尺 1人, 舞尺 2人, 歌尺 3人

△ 思內舞 : 監 3人, 琴尺 1人, 舞尺 2人, 歌尺 2人

△ 上辛熱舞 : 監 3人, 琴尺 1人, 舞尺 2人, 歌尺 2人

△ 小京舞 : 監 3人, 琴尺 1人, 舞尺 1人, 歌尺 1人

△ 思內琴舞 : 琴尺 1人, 舞尺 4人, 歌尺 5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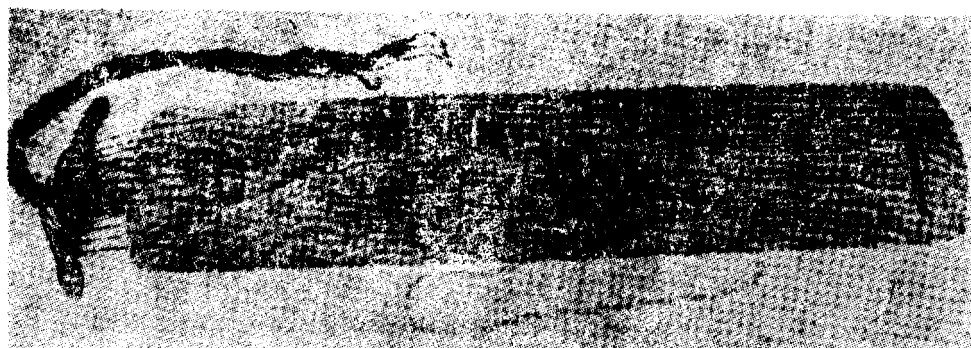
△ 韓 岐 舞 : 監 3人, 琴尺 1人, 舞尺 2人

△ 美 知 舞 : 監 4人, 琴尺 1人, 舞尺 2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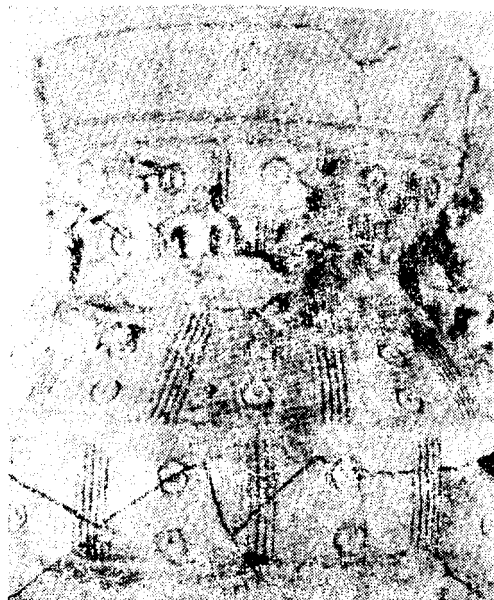
이상의 例로 보아 新羅統一 以前의 樂器 가운데서도 가야크가 代表되고 있음을 立證할 수 있다.

이 가야크가 加倭國의 嘉實王의 製作으로 傳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事實은 그보다 더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樂器라고 할 수 있다.

① 1974년 慶州 皇南洞에서 出土된 長頸壺의 가야크 奏樂圖가 있는데 이 土器는 味鄒王(262~294) 시대로 추정되고,



圖版 8. 新 羅 琴



圖版 9. 미추왕능(味鄒王陵, 262-283) 추정되고 있는  
장경호(長頸壺) 토기(土器)의 가야크 주악도(奏樂圖)

② 慈悲王(458~479) 때 百結先生이 탄 琴은 거문고(玄琴)가 아직 新羅에 傳해지지 않은 時期(거문고가 신라에 傳한 것은 7世紀 후반임) 임으로 이 琴은 가야고(伽倻琴)일 것이고

③ 따라서 奈解王(196~230) 때 勿稽子가 琴을타고 曲을 지었다는 그 琴도 가야고의 原形일 것이고,

④ 이렇게 보면 升辰에 琴도 아닌 筑(13현)과 비슷한 악기가 있었다는 陳壽의 三國志에 나오는 기록도 가야고의 原形이었으리라는 點을 시사 해주고 있다.〈도표 8, 도표 9〉

이밖에도 箏舞에 쓰인 箏라는 樂器를 비롯하여 쇠붙이로 만든 打樂器와 가죽을 씌운 북 종류는 있었을 것이다.

#### 나. 三國統一 以後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후의 音樂은 統一 以前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急速한 發展을 이룩하고 그것은 後代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文武王 4년은 羅唐聯合軍이 百濟를 滅亡시킨 다음 해이고 아직도 唐의 군사가 府城(지금의 公州)에 주둔하고 있을 때이다.

그런데 新羅 政府에서는 文武王 4년(664) 3월에 星川과 丘日 등 二十八人을 府城에 보내어 唐樂을 배우게 하였다. 이같은 唐의 軍陣에서 배운 음악은 唐의 軍樂일 것이고 樂器도 唐의 樂器로써 배웠을 것이다.

이로부터 唐나라 음악은 계속하여 신라로 흘러 들어 오기 비롯하였으리라고 본다.

三國史記 樂志에 의하면 新羅統一 以後의 樂器로 三絃三竹, 拍板(拍), 大鼓, 歌舞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三絃은 거문고(玄琴), 가야고(伽倻琴), 琵琶(5줄의 鄉琵琶)를 가리키고, 三竹은 大箏, 中箏, 小箏을 말한다.

가야고를 除外하고는 모두 새로 登場한 樂器이다.

거문고와 大箏, 中箏, 小箏은 高句麗의 樂器였고, 鄉琵琶도 고구려를 거쳐 들어온 것이고, 拍板은 새로 登場한 唐樂器 중의 하나이다.

거문고는 7世紀 後半까지는 神器로써 天尊庫에 보관되었다가 9世紀 즉 景文王(861~875)에 이르러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時代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거문고가 보급되기까지는 1世紀 이상의 진통을 겪었을 것이다. 즉

거문고는 玉寶高가 50년 연구하여 續命得에게 傳하였고 그 다음 貴金先生, 安長과 淸長, 安長의 아들 克相과 克宗을 거쳐 비로소 거문고를 배우는 이가 한 두사람이 아니었다고 三國史記 樂志에 傳한다.

그 당시 거문고, 향비파, 大箏, 中箏, 小箏에 쓰인 調와 曲名은 다음과 같다.

① 거문고

平調와 羽調에 187曲이 있었고 王寶高가 지은 曲이 上院曲 以下 30曲, 이름은 전하지 않지만 克宗이 지은 曲이 7曲이 있었다고 한다.

② 鄉琵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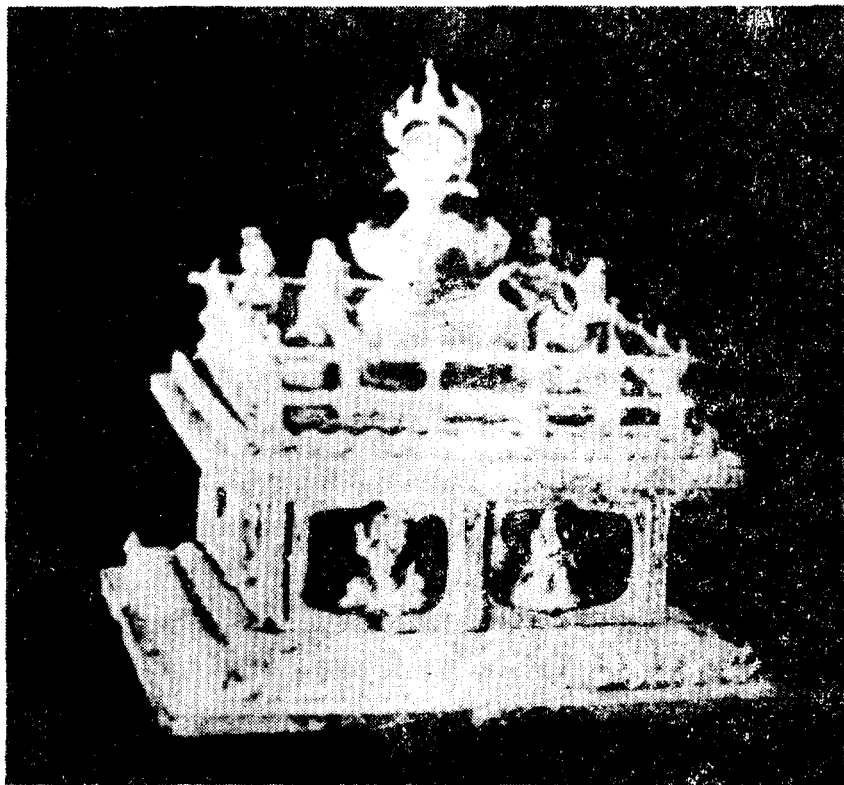
宮調, 七賢調, 鳳凰調의 3調에 212曲이 있었다.

③ 大箏, 中箏, 小箏

이 3가지 箏에는 각각 平調, 黃鍾調, 二雅調, 越調, 般涉調, 出調, 俊調의 7調에 大箏曲 324曲, 中箏曲 245曲, 小箏曲 298曲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문헌으로 傳하는 新羅의 樂器는 鄉土的인 것이 주로 소개되어 있고 그 당시 唐나라와의 교류 등 문화적 여건으로 보아 唐樂이 상당히 흘러들어 왔으리라고 판단되나 唐樂器에 대해서는 언급 없다.

그래서 新羅時代に 唐樂器가 과연 얼마나 들어왔을까 하는 점을 알아 보기 위하여 新羅時代의 遺蹟에서 發見할 수 있는 樂器를 찾아 보기로 한다.



圖版 10. 感恩寺址 青銅製 舍利器基壇(神文王 2年)

- ① 感恩寺 遺址에서 發見된 塔形基壇上的 그림  
銅鼓, 腰鼓, 橫笛, 唐琵琶 등
- ② 燕岐郡 碑岩寺에서 發見된 石碑의 그림(文武王代로 推定)  
腰鼓, 洞簫, 箏(?), 簫, 橫笛, 鼓(?) 등
- ③ 聞慶 鳳岩寺 智證大師 寂滅塔身の 그림.  
笙, 唐琵琶, 唐피리(?), 笛, 拍板
- ④ 上院寺 銅鍾의 그림.  
a) 中央: 笙, 箏篋  
b) 上帶: 箏(?)  
c) 大帶: 唐琵琶, 腰鼓

이상에서 發見된 唐樂器를 정리하면 笙, 唐琵琶, 腰鼓, 笛, 箏篋, 箏(?), 洞簫, 銅鼓, 篳篥, 拍板 등이다.



圖版 11. 上院寺 銅鍾 飛天.

비록 여기저기 散在한 樂器를 주어 모은 것이기는 하지마는 이것을 美國시카고 博物館에 보관되어 있는 周文矩의 奏樂圖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唐 周 文 矩 의 奏 樂 圖	新 羅 의 唐 樂 器
<p>琵琶(曲頸의 唐琵琶)  筚篥  箏  方響  笙  笛  箏樂  腰鼓  拍板  大鼓</p>	<p>琵琶(曲頸)  筚篥  箏(?)  ·  笙  笛  箏樂(?)  腰鼓  拍板  大鼓</p>



圖版 12. 周文矩奏樂圖



圖版 13. 周文矩奏樂圖

이와 같이 불확실한 것도 있지만은 新羅에 들어온 唐樂器는 方響을 除外하고는 周文矩의 奏樂圖에 보이는 樂器가 거의 다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문헌상으로 紹介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도표 12, 도표 13>

이상을 綜合하여 보면 高句麗는 일찍부터 中國 乃至 西域 音樂과 接함으로써 百濟나 新羅에 比하여 發展하여 隋・唐에 紹介되었고, 百濟는 南宋과의 교류와 더불어 그 음악 무용은 日本에까지 떨친 바 있다.

한편 新羅는 統一 以前까지는 가야고와 筚 등 단순한 음악을 먼치 못하다가 三國을 統一한 뒤로부터 高句麗와 百濟 音樂을 흡수하고 아울러 唐의 音樂을 導入함으로써 燦爛한 꽃을 피웠다고 하겠다.

그러한 상황에 있었으면서 唐樂에 대해서도 樂調 등 극히 部分的인 用語의 사용 이외에는 文字로써 定着시키지 않았고, 主로 우리나라 傳統的인 音樂과 樂器를 重點으로 다루어 後世에까지 傳하게 한 점은 注目할만 하다.

#### 四. 高麗 時代의 樂器

朝鮮朝 太宗 2年 6月條에

『臣等이 보건데 高麗는 三國 末葉의 音樂을 이어 받았다』라고 있는 바와 같이 高麗 初期의 音樂은 新羅時代의 音樂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더우기 新羅時代로부터 傳來하는 부처(佛)를 섬기는 燃燈會와 天靈 五嶽名山 大川龍神을 섬기는 八關會는 高麗의 國家的인 行事로써 가장 重要視되었다.

이러한 行事가 있을 때는 歌舞百戲와 宴樂을 베푸는데, 八坊廂의 工人(樂人)이 1350여인이 動員되어 盛飾하고 奏樂하는 絃歌鼓吹가 天地를 震動하였다는 기록만 보더라도 그 行事의 광대함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물론 이 때 演出되던 音樂, 舞蹈 또는 雜戲 등은 모두 傳統的인 것이었다.

##### 1. 鄉 樂 器

高麗史 樂志에 소개된 傳統的인 樂器는

거문고(玄琴), 鄉琵琶(5현), 가야고, 大琴, 杖鼓, 奚琴, 箏(鄉피리), 中琴, 小琴, 拍, 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新羅 統一 以後의 三絃(거문고, 가야고, 鄉琵琶), 三竹(大琴, 中琴, 小琴), 拍板, 大鼓와 比較하면 杖鼓와 箏만 더 첨가되었을 뿐 新羅의 體系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杖鼓와 簞箏도 新羅時代의 遺蹟에서 發見되므로 新羅 以來의 傳統이 고스란히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傳統은 朝鮮朝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部分的인 變化는 있을 當정 거의 그 줄기를 이어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新羅時代의 音樂文化는 千年 以上 뿌리 깊은 전통을 심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唐 樂 器

統一新羅 이후 高麗에 걸쳐 唐의 音樂이 流入됨으로써 傳來하는 音樂과 唐의 音樂이 양립하게 되었다.

唐詩에 대하여 鄉歌라는 말이 생기게 된 듯이 唐樂에 대하여 우리 음악을 鄉樂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현재 洋樂이 크게 번지고 있는데 대하여 國樂이라고 하는 예와 마찬가지로 하

이와 같이 唐樂 對 鄉樂의 이름이 사용됨으로부터 춤은 唐樂呈才(宮中舞)와 鄉樂呈才, 樂器는 唐樂器와 鄉樂器로 區分하게 된 것이다.

徐兢의 高麗圖經에서와 같이 唐樂은 左坊, 鄉樂은 右坊이라 하게 되고, 이 左와 右를 兩部樂이라고도 한다.

日本에서는 唐樂을 左方이라 하고, 高麗樂과 日本 傳來의 宮廷樂을 합하여 右方이라 하는데, 이는 韓國의 例와 같다.

그러면 高麗時代에 唐樂이 언제부터 어떤 음악과 춤과 樂器가 들어 왔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때 당의 음악이 처음 들어 온 것은 光宗(949~975) 때이다.

즉 唐에 사람을 보내어 工人(樂人)과 樂器를 請한 바 있는데 忠肅王(1314~1330) 때까지도 그 자손이 세습하였다 전한다.〈太宗實錄 卷 22〉

그러나 그 音樂과 樂器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문헌으로 가장 오래되고 또 具體的으로 전하기는 文宗 30년(1076)이다.

高麗史 樂志에 전하는 文宗 30년의 기록과 예종 9년(1114)에 들어온 宋의 新樂器 및 高麗史 樂志에 소개된 唐樂器는 다음과 같다.

### ① 文宗 30년의 唐樂師

米一科 十石: 唐舞樂師 兼唱詞業 1, 笙樂師 1, 唐舞師 校尉 1.



七石: 琵琶業師 校尉

二科 八石: 杖鼓業師 2, 唐笛業師 2, 鄉唐琵琶業師 各 1, 方響業師 校尉 1, 箏篋業師 1, 中琴業師 1, 歌舞拍師 1.

大樂管絃房을 定한 때의 이 樂師들 가운데는 中琴業師와 鄉琵琶業師를 제외하고는 모두 唐樂器를 다루는 樂師이다.

② 예종 9년에 들어온 宋의 新樂器

鐵方響, 石方響, 琵琶, 五絃, 雙絃, 箏, 筚篥, 箏篋, 笛, 篳篥, 匏笙, 壎, 大鼓, 杖鼓, 拍板

이 중에서 篳篥, 匏笙, 壎을 제외한 나머지 악기는 모두 唐樂器에 속한다.

③ 高麗史 樂志의 唐樂器

方響, 洞簫, 笛(孔八), 箏篋(孔九), 琵琶(絃四), 牙箏(絃七), 大箏(絃十五), 杖鼓, 教坊鼓, 拍

이 중에서 以前에 없던 牙箏이 添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高麗史 食貨志, 睿宗 9年の 新樂器, 高麗史 樂志의 唐樂器를 前記 唐의 周文矩의 奏樂圖와 比較하면 약간의 증감이 있을 뿐, 별로 다를 바가 없다.

### 3. 大晟雅樂器

高麗時代는 唐樂과 傳統的인 鄉樂으로 양립되었는데 睿宗 11년(1116)에 宋이 徽宗이 制定한 大晟雅樂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 한 갈래의 音樂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 雅樂器

睿宗 11년에 들어온 大晟雅樂의 登歌樂器와 軒架樂器는 다음과 같다.

1) 登歌樂器

編鍾: 正聲(16顆), 中聲(12顆)

編磬: 正聲(16枚), 中聲(12枚)

琴: 一絃, 三絃, 五絃, 七絃, 九絃 各 2

瑟: 2

篳篥: 正聲, 中聲 各 2

簫: 正聲, 中聲 各 2

簫: 正聲, 中聲 各 2

篳篥: 正聲, 中聲 各 2

壎: 正聲, 中聲 各 2

搏拊: 2

祝: 1

鼗: 1

應幡: 1 (악기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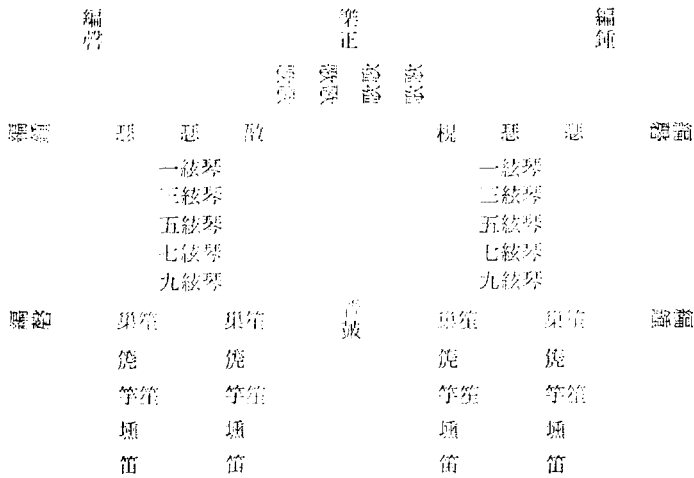
2) 軒架樂器

編鍾: 九架, 正聲(16顆), 中聲(12顆)





4) 右司攝事 軒架 配置圖



이밖에도 고려 毅宗(1146~1170)에 설정한 法駕衛仗, 八關儀仗, 燃燈衛仗, 函簿 등에 吹角軍士와 吹螺軍士 外에 金鉦 10人, 鼙鼓 10~20人, 桴鼓 6~20人 등과 雜伎 40人이 따랐다.

특히 注目되는 것은 安國伎 40人, 高昌伎 16人, 天竺伎 18人, 清樂 5人 등 이 수레의 左右에 도열하여 隨行한 점인데 과연 어떤 樂器編成에 의하여 무슨 音樂을 演奏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

## 五. 朝鮮 時代의 樂器

朝鮮 初期에는 太宗 6년(1407) 7월에 明에서 編鍾 1들, 編磬 1들, 琴 4, 瑟 2, 笙 2, 簫 4을 들여온 이후로는 外國에서 사들인 樂器는 거의 없고 世宗朝에 이르러 編鍾, 編磬 등 모든 樂器를 製作하여 自給自足하게 되었다.

### 1. 世宗代의 樂器 製作 事業

世宗代의 樂器 事業은 세종 5년(1423)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全力을 기울이기는 세종 7년(1425)에 京畿道 南陽에서 희귀한 磬石(磬石)이 發見된 뒤부터라고 할 수 있다.

#### 가. 編磬의 製作

編磬을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磬들이 없어서 中國에서 사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平安道 成川, 慶北 醴泉에서 磬들이 發見되었으나 그 소리가 좋지 못하였고 京畿 南陽에서 採石한 磬들은 中國의 磬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

그래서 玉人을 보내어 採石케 하고 世宗 8년 가을부터 編磬 製作에 着手하여 동 9년 5월에 12枚(c에서 b까지 12音)로 된 中磬의 編磬 1틀을 제작 하였다.

그런데 世宗 15년(1433) 正月 乙卯條에 의하면 세종 8년(1428) 가을부터 세종 10년(1428)까지 2년 동안에 宗廟와 永寧殿에 쓸 編磬과 다른 祭祀에 通用할 수 있는 編磬과 特磬까지 합하여 528枚를 제작하였다고 한다.〈世宗實錄 卷 59〉

528枚를 16枚(c에서 d'♯까지 16音)의 正磬의 編磬으로 계산하더라도 33틀이 되는 거대한 事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會禮宴 때 登歌와 軒架에 필요한 編鍾, 編磬, 特鍾, 特磬 등이 얼마나 所要되었는가를 하는 점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많은 樂器가 필요했는가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成宗 24년에 편찬된 樂學軌範 卷2에 의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1) 世宗 때의 登歌와 軒架(五禮儀)

ㄱ) 登歌: 特鍾 1, 特磬 1, 編鍾 1, 編磬 1

ㄴ) 軒架: 黃鍾, 大呂, 太簇, 夾鍾, 姑洗, 夷則, 南呂, 無射, 應鍾의 鍾과 磬이 各各 9틀, 編鍾 9틀, 編磬 9틀

2) 成宗 때의 登歌와 軒架

ㄱ) 登歌: 特鍾 1, 特磬 1, 編鍾 1, 編磬 1

ㄴ) 軒架: 編鍾 9틀, 編磬 9틀(編鍾과 編磬은 北, 東, 西에 各 3틀씩임)

이와 같이 軒架에는 編鍾과 編磬이 각각 9틀씩이나 편성된다.

따라서 宗廟와 永寧殿을 비롯하여 園丘, 禮稷, 先農, 先蠶 등 많은 祭享에까지 각각 사용하도록 製作한 점을 생각하면 이 숫자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나. 編鍾의 製作

編鍾은 編磬에 비하여 전부터 간직하여 온 수량이 약간 많았다.

그러나 編磬 製作을 계기로 世宗 11년(1429) 2월에 鑄鍾所를 麻浦 江邊에 두어 特鍾과 編鍾을 鑄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世宗 12년 7월과 13년 6월에 새로 만든 會禮樂器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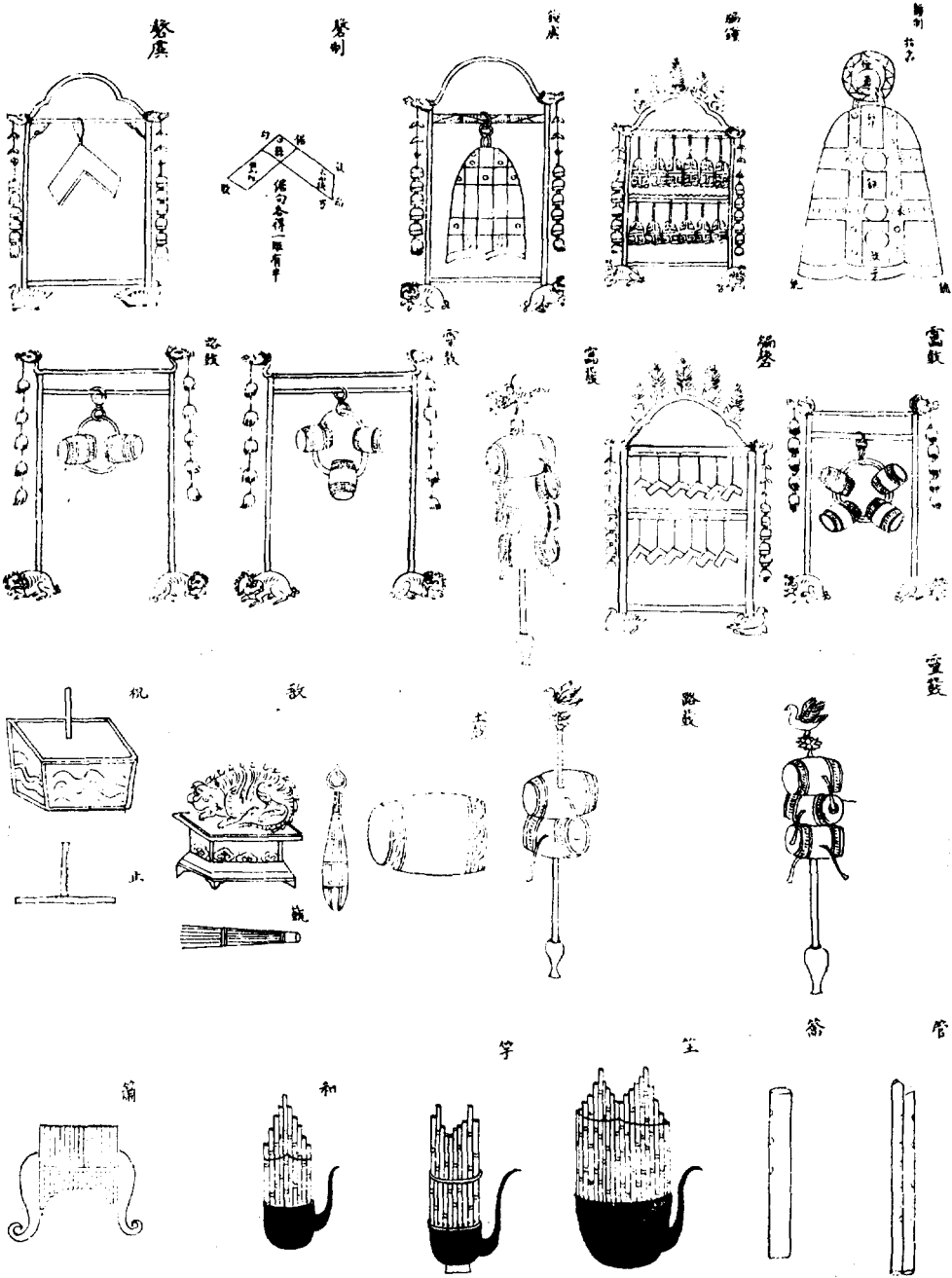
그러나 그 때 얼마나 제작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은 編磬과 같은 수의 樂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編鍾이 製作되었으리라고 믿는다.

다. 其他 樂器의 製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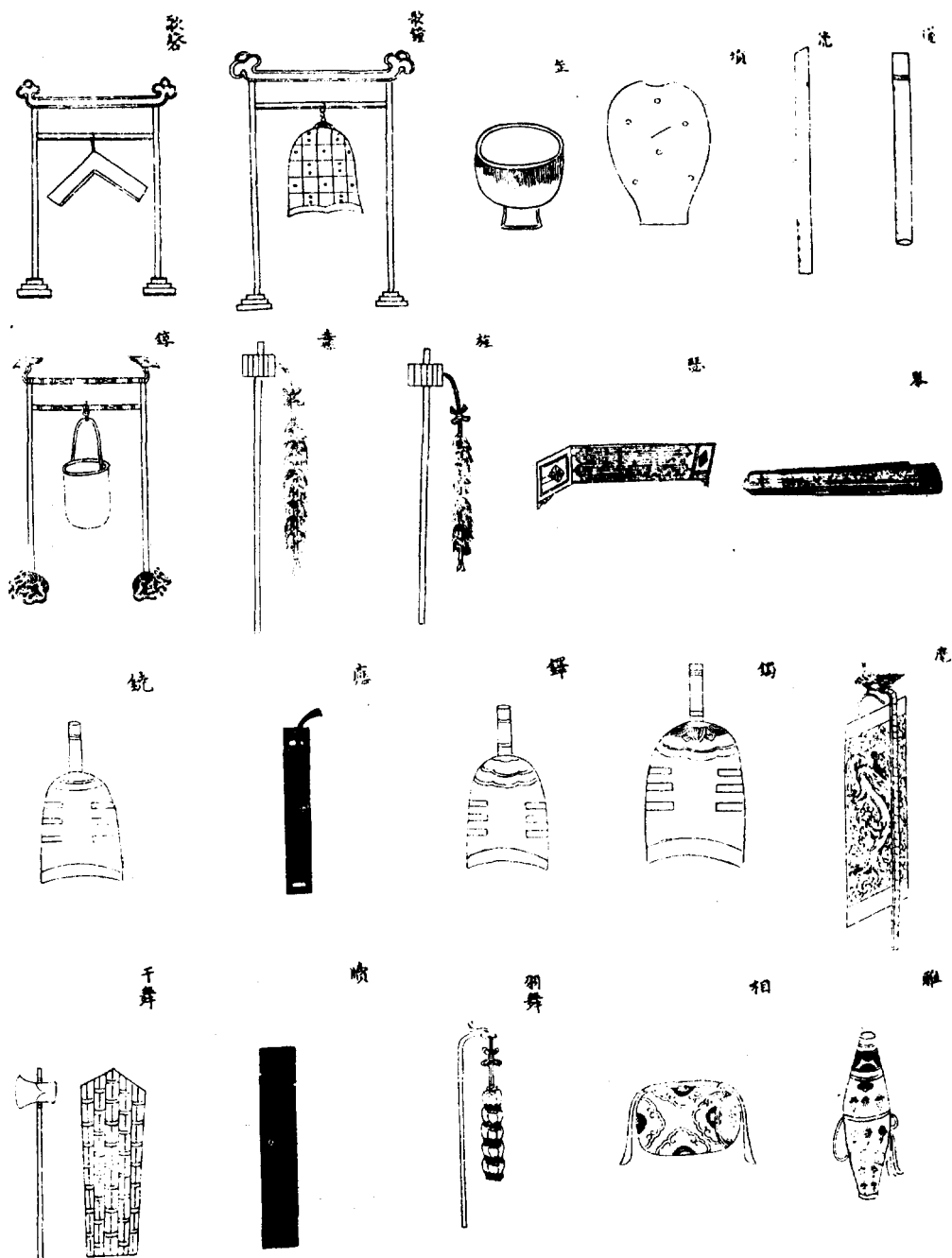
編鍾, 編磬, 特鍾, 特磬 이외의 樂器 製作은 대개 다음과 같다.

1) 世宗 5년 2월의 製作 樂器

琴, 瑟, 大箏, 笙, 鳳簫 등을 만들어 雅樂署와 典樂署에 나누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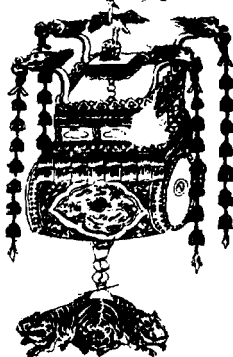
圖版 14. 世宗實錄 卷128 所載 樂器



圖版 15. 世宗實錄 卷128 所載 樂器

樂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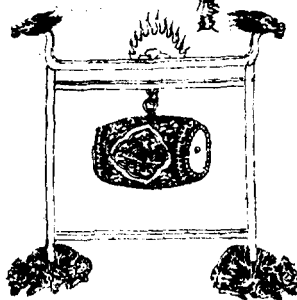
鼙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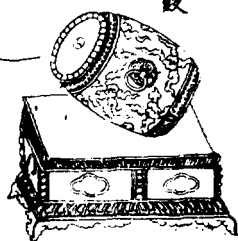
北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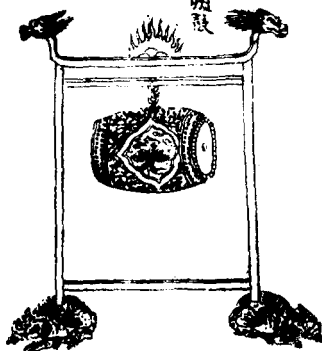
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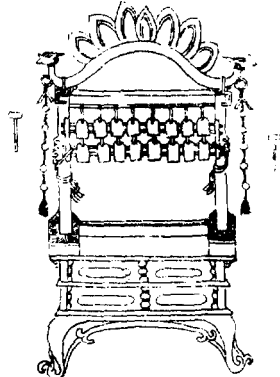
節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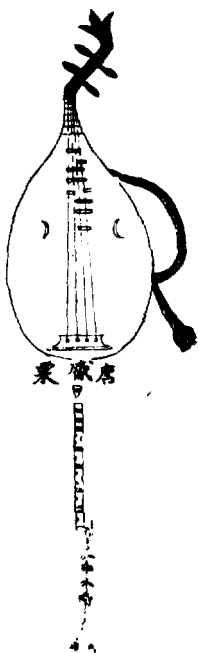
頤鼓



方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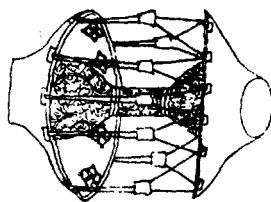


唐琵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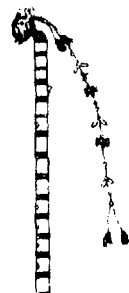


唐鐵栗

鼓鼓



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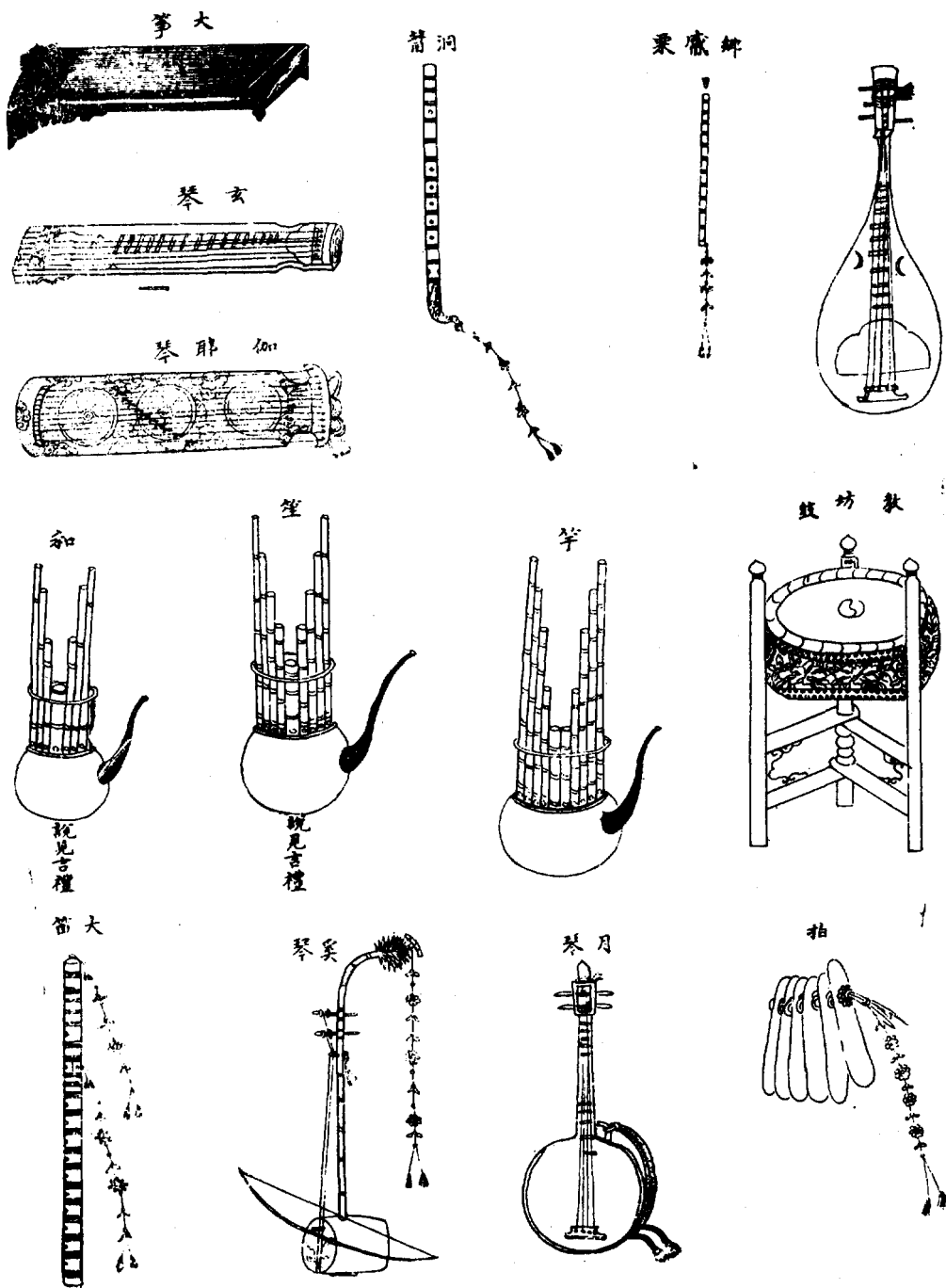


牙箏



圖版 16. 世宗實錄 卷132 所載 樂器





圖版 17. 世宗實錄 卷132 所載 樂器

2) 世宗 6년 11월의 製作 樂器

笙 21, 和 14, 竽 15, 琴 8, 瑟 16, 箏 3, 牙箏 3, 가야고 2, 거문고 2, 鄉琵琶 2

3) 世宗 12년 10월의 製作 器樂

琴 6, 瑟 6, 欸 1, 祝 1, 塤 10, 缶 10, 簫 10, 笛 10, 簫 10, 笙 10, 管 10, 竽 10, 簫 10

4) 世宗 18년 4월의 製作 樂器

咸吉道 都節制使營 및 會寧 慶源 등 邊鎮에 보내기 위하여 제작하였으나 대개 거문고, 가야고 등 鄉樂器였을 것이나 그 수량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樂器를 製作함에 있어서는 孟思誠, 柳思訥, 南汲, 鄭穰, 朴堧 등이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도 孟思誠과 朴堧이 中心人物으로써 그 功이 크다.

世宗 때 製作한 樂器는 世宗實錄 卷128「五禮·吉禮序例」의 樂器圖說과 卷132「五禮·嘉禮序例」의 樂器圖說에 傳한다. <도표 14. 15, 16, 17>

## 2. 世宗 때의 樂器와 成宗 때의 樂器와의 比較

다음은 世宗代의 樂器와 成宗 24년(1493) 8월에 成倪이 중심되어 典樂 朴棍, 金福根 등이 왕명에 의하여 지어 올린 樂學軌範 卷6, 7에 傳하는 樂器와 현재 전하는 樂器와 比較하여 서로 다른 집단을 들면 다음과 같다.

가. 雅樂器(吉禮序禮의 樂器)

### 1) 特鍾과 歌鍾

世宗實錄의 歌鍾은 樂學軌範 特鍾과 같다. 다만 세종 때의 軒架에는 黃鍾(c) 特鍾에서 應鍾(b) 特鍾까지 각각 한 음만 내는 12개의 特鍾을 사용하였다.

### 2) 編 鍾

高麗史 樂志에 의하면 雅樂器에는 正聲과 中聲의 두 가지가 있었다.

正聲은 黃鍾(c)에서 清夾鍾(d'♯)까지 12律과 四清聲(c', c'♯, d', d'♯)을 갖춘 編鍾이고, 中鍾은 黃鍾(c)에서 應鍾(b)까지 12律만 갖춘 編鍾이다.

世宗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

그러나 世宗實錄 卷128에 나오는 編鍾은 中聲에 속하고, 樂學軌範과 現在의 編鍾은 그 正聲에 속한다.

### 3) 特磬과 歌磬

(I)의 特鍾과 歌鍾의 例와 같다.

### 4) 編 磬

(2)의 編鍾의 例와 같다.

### 5) 雷 鼓

악학궤범에 의하면 雷鼓는 6面の 북으로 天神에 쓰고, 靈鼓는 8面の 북으로 地神 祭享에 쓰고, 路鼓는 4面の 북으로 人神祭에 쓴다고 하였고 현재도 이 제도를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세종실록의 雷鼓는 8面, 靈鼓는 6面으로 되어 있어 각각 다르다.

또한 雷鼓와 靈鼓의 제도는 악학궤범에서는 마늘모아 같은 모양에 한편만 가죽을 씌워 둥글게 돌려 매달았고, 세종 때의 雷鼓는 양편에 가죽을 씌운 북 4개, 靈鼓는 양면에 가죽을 씌운 북 3개를 圓鉄에다 돌려 매단 점이 서로 다르다. 현재 전하는 것은 악학궤범의 제도와 같다.

#### 6) 靈 鼓

雷鼓, 靈鼓, 路鼓의 제도는 악학궤범과 현재의 제도와 같이 긴 장대에 꿰인 점에서는 같으나 雷鼓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면 수효가 다르다.

#### 7) 靈鼓와 路鼓

雷鼓의 제도와 같다.

#### 8) 笙

세종실록의 笙은 악학궤범의 笙보다 管數가 많으며 竽와 和도 조금씩 다르다.

#### 9) 簾와 塤

簾는 세종실록의 설명에 의하면 악학궤범과 같아 正聲에 속한다.

塤은 악학궤범의 것은 指孔이 5孔이고, 世宗實錄의 塤은 指孔이 6孔 이다.

世宗實錄의 塤은 正聲에 속하고, 악학궤범의 塤은 中聲이며, 현재의 塤은 악학궤범의 제도이다.

#### 10) 土 鼓

세종실록에만 있고 악학궤범에는 전하지 않는다.

나. 唐樂器와 鄉樂器(嘉禮序例의 樂器)

嘉禮序例에 나오는 악기는 25종이고, 세종실록 卷132, 鹵簿에 쓰이는 악기로 2종이 있다.

악학궤범의 악기와 다른 점만 들어 보기로 한다.

##### 1) 笛

唐笛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학궤범의 唐笛은 指孔이 7孔인데 세종실록의 笛은 그림이 선명치 않아 잘 알 수 없다.

##### 2) 唐 箏 箏

세종실록의 唐箏리는 指孔이 앞에 7, 뒤에 2, 합하여 9孔으로서 高麗史 樂志의 唐箏리와 一致한다.

이 唐피리는 악학궤범 시절에 이르러 앞에 7, 뒤에 1의 8孔으로 고치어 현재에 이른다.

### 3) 大 筚

世宗實錄에는 大筚이라고 하였으나 전체 구멍수가 13孔 이어서 高麗史 樂志 및 악학궤범 이 大笳과 一致한다. 즉 大筚은 大笳으로 생각한다.

### 4) 和, 笙, 竽

嘉禮序禮의 和, 笙, 竽는 吉禮序例의 그것과는 管數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樂學軌範의 것과 더 가깝다.

이밖에도 악학궤범에 소개된 太平簫, 小管子, 草笛 등의 악기는 세종실록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 3. 唐樂器의 鄉樂器化 過程

中國이나 西域 지방에서 들어온 樂器라도 그것이 時代가 흐름에 따라 吸收同化되어 鄉樂器化 되던가 그렇지 못한 것은 自然淘汰되고 말았다.

그 한 예를 들면 三國時代에 들어온 西域系의 五絃琵琶는 鄉琵琶라 하게 되었고, 杖鼓와 奚琴도 高麗時代에 이미 鄉樂器 구실을 하였고, 月琴, 唐琵琶, 唐笛, 牙箏 등은 모두 朝鮮時代에 이르러 鄉樂器化 過程을 밝게 된다.

그 實例를 一部 들어 보기로 한다.

### 1) 拍

新羅 三國統一 이후에 이미 鄉樂에 사용하였고, 그 뒤 鄉樂과 唐樂에 아울러 쓰게 되었다.

### 2) 杖 鼓

高麗史 樂志 이후로 鄉樂과 唐樂에 아울러 쓰게 되었다. 三國時代의 杖鼓(腰鼓)는 작은 形이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장구와 같이 大形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다른 鄉樂器의 音色과 調和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본다.

### 3) 奚 琴

高麗 때부터 이미 鄉樂에 編成되었고 樂學軌範에는 다만 鄉樂에 만 쓴다고 하였고, 그 조율법도 平調와 界面調의 鄉土의인 것이었다.

### 4) 月 琴

악학궤범 月琴條에 다만 鄉樂에 만 쓴다고 하였고, 그 調絃法도 純鄉樂式이었다.

### 5) 牙 箏

악학궤범에 「예전에는 唐樂에만 썼으나 지금은 鄉樂에 겸하여 쓴다」라고 있다. 그 調律法에도 唐樂調와 鄉樂調의 두 가지를 쓰게 되었다.

#### 6) 唐 笛

高麗史 樂志나 樂學軌範의 唐笛은 7孔인 점에서 같으나, 樂學軌範에서는 제 7孔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였고, 그 당시까지도 당악 음정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7) 唐 피 리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뒤의 한 구멍을 없애어 9孔에서 8孔으로 改良하였다. 그러나 樂學軌範 이후 현재까지 계속 唐樂 음정을 유지하고 있는 唯一한 樂器 중의 하나이다.

#### 8) 唐 琵琶

唐琵琶는 樂學軌範 시대로 내려오면서 棼(柱)의 數가 불어 난다.

元來의 唐琵琶는 四柱였으나 이것이 十二柱까지 불어난다. 다시 말하면 音域이 넓어짐과 同時에 鄉樂도 演奏하도록 改良되는 것이다.

즉 唐樂은 上調와 下調의 두 調에 의하여 四柱된 사용하고 鄉樂은 平調와 界面調 두 調에 十一柱를 모두 사용하하고, 唐樂을 演奏할 때에는 撥木을 사용하는 반면 鄉樂을 演奏할 때에는 假瓜角을 끼고 탔다.

이러한 점은 唐琵琶가 鄉樂器에 接近 改良 過程이라 할 수 있다.

例外로 雅樂器化되는 것에 方響이 있다. 方響은 傳統的인 唐樂器 중의 하나이다. 이 方響은 壬辰亂 以前과 壬辰亂 以後의 音律 配列法이 다르다.

그러나 그 音域이 한 옥타브 半에 이르는 反面에 한 옥타브 안에 12律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에서서는 다는 唐樂器와 함께 雅樂器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唐樂器도 朝鮮 末朝에 이르면 雅樂器인 編鍾이나 編磬과 같이 12을 四清聲으로 바뀌게 되고 音律 配列法도 編鍾, 編磬과 同一한 樂器로 改良되는데, 이는 鄉樂器化가 아니라, 반대로 唐樂器가 雅樂器化되는 特例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唐樂器가 鄉樂器에 가까와지고 이와 併行하여 唐樂도 차츰 土着化되어가고 있는 證左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鄉樂器의 音高 및 奏法의 變化

朝鮮 初期의 모든 音樂은 成宗 때 樂學軌範으로써 일단 總整理가 된 셈이다.

그 후 燕山君時代에 이르러 종던 나쁘던 간에 音樂界에는 一大暴風이 일어났다.

燕山君은 中國系 雅樂을 물리치고 唐樂까지도 멀리하라 하였다.

오직 傳統 音樂만을 내 세우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비록 그의 흥겨운 遊宴을 目的으로 한 것이라 하지만 結果的으로는 外來

音樂 一邊倒의 社會風潮를 打破하고 傳統을 내세운데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믿는다.

이로부터 中國系 雅樂은 衰微一路 形式的인 外形만 갖추면서 朝鮮 末期까지 命脈만 유지함에 이르렀다.

또 唐樂도 이 때부터 鄉樂 속에 同化되거나 그렇지 못한 것은 自然 湮滅되고 말았다.

이와 반대로 鄉樂은 成宗 以前의 音樂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奏法이 開發되어 潤氣있는 音樂으로 전환하였다.

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모든 鄉樂器의 音高는 前보다 높아져 드높고 힘찬 소리로 變하고, 거문고나 가야고 또는 奚琴과 같은 絃樂器는 줄을 밀어나 잡아 당기어 연주함으로써 弄絃, 轉聲, 退聲 등 새로운 技法을 自由自在로 쓸 수 있어 成宗 以前의 淡淡的 音樂에서 表現力을 가질 수 있는 興과 멋의 音樂으로 轉換 發展함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樂學軌範의 鄉樂器 奏法과 宣祖 5년(1572)의 琴合字譜, 光海君 2년(1610)의 梁琴新譜 등의 奏法과의 比較研究에 의하여 立證되고 있다.

中宗 15년(1520) 〈中宗實錄 卷50〉에 金世弼이 『中國의 音樂은 艷麗하지는 못하나 높고 또 높았으나(淸則淸), 우리나라 풍속에는 艷麗한 음악을 즐긴다』라고 한 바와 같이 鄉樂은 朝鮮 中期이후로 本然의 姿勢로 되돌아 갔다고 하겠으며 이것이 더욱 發展하여 現在에 이른다.

朝鮮 中期 以後로 變化된 樂器 중 중요한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거 문 고

거문고는 樂學軌範(1493) 시절까지는 줄을 가볍게 누르고 타는 輕按法에 의하여 연주하던 奏法에서 宣祖初 무렵부터는 줄을 밀어 타는 力按法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力按法으로 바뀌면서 거문고는 多樣하고 豊富한 表現力을 갖게되고 아울러 전체 音高도 3律 가량 높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 거문고 調律法은 樂學軌範(1493)의 調律에서 琴合字譜(宣祖 5년, 1572)에서 변하고, 梁琴新譜(光海君 2년, 1610)에서 또 한 번 바뀌고, 純祖(1801~1834) 때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葉에서 調에 관계없이 統一된 調律法으로 바뀌어 그 법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 2) 奚 琴

해금은 樂學軌範 시절에는 줄을 당기지 않는 輕按法에 의하여 연주되었다.

지금은 줄을 당긴채 運指하고 있는데 이러한 力按法도 거문고가 力按法으로 轉換한 時期에 함께 바뀌어졌으리라고 판단된다.

### 3) 大 琴

樂學軌範 시절에는 大琴, 中琴, 小琴의 세 樂器의 音域, 音高, 運指法 등이 서로 같았다.

그러나 後代로 내려오면서 小琴은 없어지고 現在까지 中琴만이 樂學軌範 시절의 原形을 維持하고 大琴은 거문고와 같이 音高와 運指法이 變하였다.

따라서 現在 演奏되고 있는 大琴은 變形이고, 原形은 中琴으로서 古形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 4) 其 他

이와 같이 거문고, 奚琴, 大琴이 朝鮮 中期 이후도 그 奏法이 달라졌다.

이 세 가지 악기는 文獻과 古樂譜의 比較研究에서 證明이 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악기가 分明히 變化 發展한 이상 合奏에 있어서 함께 編成되는 鄉피리나 가야고 등의 악기도 같은 시기에 變化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5. 唐樂器의 鄉樂器化

唐樂器로서 完全히 鄉樂器化된 것에는 杖鼓, 奚琴, 牙箏, 拍, 唐笛, 洞簫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 拍, 杖鼓, 奚琴, 牙箏은 前項에서 言及한 바와 같기로 여기서는 唐笛과 洞簫만 들기로 한다.

### 1) 唐 笛

樂學軌範 시절에는 唐樂 演奏에 맞는 音高, 音域을 가졌으나 朝鮮 中期이후로 第七孔이 없어져 6孔으로 改良되면서 그 音域, 音高, 指法 등 大琴과 같아 졌다.

다시 말하면 唐樂器가 完全히 鄉樂器化한 例의 하나이다.

### 2) 洞 簫

이 악기도 唐樂器이었는데, 지금은 完全히 鄉樂器化한 악기 중의 하나이다.

## 6. 朝鮮 末期에 새로 登場한 樂器

朝鮮 末期에 이르러 전에 없던 몇 가지 樂器가 登場한다.

純祖 戊子(1828), 己丑(1829) 進饌儀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洋 琴

洋琴은 中世紀 이후 전 구라파에서 성행하던 달시머(Dulcimer) 또는 첼발로(Cembalo)라고 부르던 악기가 中國을 거쳐 英祖 때에 우리 나라에 들어온 악기이다.

洋琴은 西洋琴의 준 이름이다.

### 2) 雲 羅

우리 나라에는 원래 없던 악기인데 순조 戊子(1828), 己丑(1829) 進饌儀軌에 처음 보인다. 그 뒤 없어졌고, 1937년 北京에 사온 바 있고, 지금은 우리의 음律에 맞도록 만들어 쓰고 있다.

### 3) 短 簫

樂學軌範, 朝鮮 末期의 各鍾 儀軌에도 소개되어 있지 않다. 鄉樂器化한 洞簫의 작은 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4) 子 絃

3줄로 된 이 絃樂器는 그 모양이 마치 日本의 三味線과 비슷하다.

純祖 戊子(1828), 己丑(1829) 進饌儀軌에 보이나 그 뒤 없어졌다.

### 5) 箏

箏의 이름은 三國時代부터 있었는데 高麗 이후로 사용되지 않았고, 순조 시대에 다시 등장한 악기이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 6) 箜 篌

이 종류의 악기는 三國時代부터 사용되던 악기로 臥箜篌, 豎箜篌, 大箜篌, 小箜篌 등이 있다.

高麗 이후로 없어진 악기이다.

현재 國立國樂院에 保管된 箜篌類는 1937년 中國에서 사온 것도 있고, 새로 만든 것도 있다.

## 7. 演奏法을 잃은 樂器

현재 전하는 樂器 중에서 그 演奏法을 잃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악기에는 唐琵琶, 鄉琵琶, 琴, 瑟, 月琴, 笙 등을 들 수 있다.

小管子(3孔의 橫笛)는 樂學軌範 이후 없어졌다.